불교, '기후위기 극복' 팔걷다

천태종, 기후위기 시민강좌 개설
5월 22일~6월 12일 총 4주 간
불교환경연대, 봉축주간 캠페인
전남대도 종교역할 고찰 세미나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불교계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천태종은 기후위기 인식 확산을 이끌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했다. 천태종 산하 NGO단체 (사)생명존중 환경포럼(이사장 무원)이 주최하고 (사)나누며하나되기(이사장 도웅)가 공동 주관하는 지구기후학교 시민강좌가 그것이다.

지구기후학교 시민강좌는 5월 22일부터 6월 12일까지 4주 동안 안국동 서원빌딩 회의장에서 진행된다. 이번 강좌는 기후위기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강의와 워크샵을 통해 이에 대한 고민과 극복방안을 모색한 자리로 마련된다.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총 8강좌로 구성됐으며 강사진은 미학자, 명상지도자, 생명윤리학자, 철학자, 과학자 등의 다양한 인문학적 소양 등을 갖춘 전문가들로 이뤄졌다. 이를 통해 과학적 사실 뿐 아니라 지혜의 방법론으로서 마음, 사회, 자연이라는 세 가지 영역을 기반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해결방안을 고민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전 강좌는 현장 강의 및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동시 진행된다. 5월 22일 오후 1시 첫 강좌는 권희중 생태적지혜연구소 연구원이 '기후변화, 일, 건강'을 주제로 강의한데 이어 임지연 미학의 집 소장이 '기후변화와 생태감수성'을 강의한다. 한 강의가 끝난 이후에는 강의 주제와 관련한 워크숍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도 함께 진행된다.

이어 5월 29일 오후 1시에는 이승준 광운대 강사가 '기후변화와 소수자'를, 전병옥 기술마케팅연구소장이 '기후변화와 에너지전환'을 주제로 강의하며, 6월 5일 오후 1시에는 이나미 한서대 연구교수가 '기후변화와 생태시민성'을 주제로, 신승철 생태적지혜연구소장이 '기후위기 실태, 원인, 전망'을 주제로 진단한다. 6월 12일 오후 1시에는 장윤석 생태적지혜연구소 연구원이 '기후위기와 탈석탄, 그리고 녹색평화'를, 이어 문윤형 명상지도자가 '기후변화와 마음의 생태학'를 강의에 나선다.

이번 지구기후학교 시민강좌는 대한불교진흥원 후원으로 진행되며 5월 20일까지 현장강의 20명과 온라인 8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02)730-2401

이에 앞서 불교환경연대는 불교기후행동, 녹색사찰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전국 2300여개 사찰을 대상으로 '생명을 존중하는 부처님오신날 공동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기후위기로 각종 부작용에 직면한 지구와 지구상의 뭇생명들을 위해,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으로 돌아가 생명 존중을 통한 실천행에 나서자는 취지다.

캠페인은 5월 12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사찰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행을 중심으로 전개됐으며, 동참사찰은 불교환경연대가 배포한 포스터를 경내에 부착하고 △채식하기 △빈그릇 운동 △일회용품과 비닐·플라스틱 줄이기 세 가지 실천방침을 실천했다. 개인 서약서도 함께 제안해 서약동참자들을 대상으로 캠페인 이후 '환경보살의 한끼 채식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전남대 종교문화연구소(소장 송오식)도 5월 14일 '기후위기 시대 종교의 역할'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과도한 탄소가스의 배출로 지구와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시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혜를 모으기 위한 자리로,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4대 종단의 학자와 환경시민단체가 발제와 토론자로 나섰다.

불교에서는 안필섭 동국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으며 개신교 대표로는 전남대 최병주 교수와 성결대 오은열 교수가, 가톨릭은 세종대 전의찬 교수, 원불교는 원영상 원광대 교수가 참석해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의식과 종교계 역할을 고찰했다.

"선리 전하는 선법가, 정신 진화 발전"

〈禪理〉 〈禪法歌〉

'대행선사 9주기 다례재' 봉행
한마음선원, 5월 12일 본원서
'선법가' 추모영상 큰울림 선사
선원 유튜브채널 동시 생중계



한마음선원은 5월 12일 '묘공당 대행 선사 9주기 열반 다례재'를 봉행했다. 노덕현 기자

'한마음 주인공 관법'이라는 생활선 수행으로 중생 교화와 포교에 힘쓴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향훈과 가르침을 되새기고 정신을 선양하는 다례재가 봉행됐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고(苦)가 높아진 작금의 현실에서 일생동안 중생 제도를 펼친 대행 선사의 자취를 돌아보게 하는 이 행사는 대중들의 마음에 큰 울림이 되었다.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은 5월 12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5층 법당에서 '묘공당 대행 선사 9주기 열반 다례재'를 봉행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방침에 따라 이번 다례재는 한마음선원 문도 스님들을 중심으로 국내외 25개 지원 신도 및 주요 임원 300여 명만이 참석했다. 행사 전에는 대한불교조계종 대종사이자 BTN불교TV 회장 성우 스님과 前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 등이 헌화 분향 했다.

이어진 다례재는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과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 광명선원 주지 청백 스님을 비롯한 선원 스님들의 헌다와 헌향, 헌화로 시작되었다. 또 본원과 각 지원 신도회장, 임원들도 각령전에 헌화하며 대행 선사를 향한 추모의 의지를 내비쳤다.

이사장 혜수 스님은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한 많은 신도들이 계신다. 그 분들에게 일일이 모두 감사한 마음 뿐"이라며 "선법합창단이 있는 것만으로도 자랑이고 자긍심이다. 악보도 못보고 그랬던 합창단원들이 큰 스님 말씀 잘 받들어서 이렇게 음성공양들을 훌륭히 해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내년 10주기를 맞아 대합창제를 준비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음악회 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오늘 신도들이 합창을 준비한 영상을 보며 한편의 작은 합창제를 본 것 같아 감동스럽고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다례재에서는 문도를 대표해 혜염 스님 등 5명의 상좌들이 '스승의 은혜'를 불러 사부대중의 간절한 마음을 대신하였다.

이어 진행된 추모특집 영상에서는 선법가(禪法歌)를 만들어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따라 부르며, 불법의 묘미를 저절로 깨닫도록 이끄신 대행 선사의 뜻을 일깨움과 동시에 선법가의 지나온 역사도 함께 조명해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다.

부친 故서창업 불교음악 작곡가의 뒤를 이어 불교음악가로 활동중인 한마음선원 선법합창단 서윤재 지휘자는 영상 인터뷰에서 "합창단들은 선법가 소절 한마디 한마디 마다 마음에 새기려는 심정으로 노래했으며 거기에 크게 감명을 받았다"고 회고했다.

이어 한마음선원 본원 총무 혜룡 스님도 "일체 모든 생명들의 대화합의 장이며 법석이구나. 선사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구나"라고 법열감을 피력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어 한마음선원 본원과 국내외 22개 지원의 합창단원 609명은 지원 별로 각각 촬영하고 편집한 영상을 통해 '자유인의 한마음' '공무가' '선법가는' 세 곡을 온라인 음성 공양으로 올렸다.

한편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선원 입구에서 발열과 방문 기록 체크를 하는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한편 다례재를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생중계해 사부대중 1천여명이 온라인으로 다례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모범적인 종교 활동을 보여주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봉축 맞아 자비나눔·백만원력 기금 답지

조계종, 5월 13일 자비의 선물
종정 진제 대종사 1천만원 전달
전국 사찰·기업 후원도 잇따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조계종이 소외이웃을 위한 자비나눔에 나섰다. 이와 함께 종정예하 진제 대종사를 시작으로 아름다운동행을 통한 전국 사찰·기업 후원도 잇따르고 있어 나눔실천으로 봉축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고 있다.

조계종은 5월 13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백만원력결집불사 자비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쪽방촌 주민들에게 자비선물을 전달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비롯해 백만원력결집위원장 금곡 스님(총무원 총무부장) 등 부실장 스님들과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 스님은 5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쪽방촌 주민을 위한 자비의 선물 행사'를 진행했다.〈사진〉

이날 포장된 선물은 중림동과 영등포 쪽방촌 주민 600여 명을 위한 것으로 즉석밥과 컵라면, 참치캔, 김, 구운계란, 생수, 칼슘두유, 과일야채음료, 견과류바, 손소독제, KF94마스크가 한 박스에 담겼다. 이번 자비나눔에는 도반유통이 감로수 생수를, 매일유업이 과일야채음료와 두유, 에너지바 등을 후원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앞서 종정 진제 대종사는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자비나눔기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진제 스님은 지난 2011년부터 매년 부처님오신날과 연말연시에 사회의 어둡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자비나눔으로 귀감이 되고 있다.

한글과컴퓨터그룹(이하 한컴그룹) 김상철 회장도 5월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20kg 쌀 100포와 마스크 3만장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물품을 소외이웃을 위해 사용될 계획이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한 NH농협은행 임직원도 5월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하고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에 자비나눔 기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서울 연화정토사(주지 성천)와 서울 강북구불교사암연합회, 강화 전등사(주지 여암)는 불교 인재불사에 원력을 보탰다. 연화정토사는 5월12일 경내 법당에서 전달식을 열고 청소년 장학금 460만원을 쾌척했으며 강북구불교사암연합회는 청소년 장학금 1300만원을 아름다운동행에 기탁했다. 강화 전등사도 강화 삼량고등학교 학생 등 총 12명에게 장학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송지희 기자

2021불자대상에 박권흠·한금순·부석종

5월 19일 봉축법요식서 시상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박권흠 회장, 한금순 역사학자, 부석종 총장.

조계종 불자대상 선정위원회(위원장 원행, 총무원장)는 5월 4일 2021불자대상 수상자로 박권흠 한국차인연합회장, 한금순 역사학자,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을 선정했다. 박권흠 한국차인연합회장은 3선 국회의원으로 봉직하면서, 교도소와 병원을 건립하는 등 국가의 발전과 국민들의 안녕을 위해 진력했다. 현재는 (사)한국차인연합회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한국의 차문화를 함양하여, 국민들의 정서 안정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 받아 선정됐다.

한금순 역사학자는 제주 근현대사 역사학자로서, 법정사 항일운동, 제주4.3사건의 불교계 피해 규명 및 제주 불교의 근현대사 연구를 통해 제주 지역사를 재조명한 공로를 높게 평가 받았다.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국민들을 위해 봉직하고 있으며, 해군사관학교 졸업한 이후 36년간 해군장교로 재임하면서, 투철한 애국심으로 국가 안보확립에 지대한 공로에 불자대상자로 선정됐다. 노덕현 기자





2565(2021).05.19
부처님 오신 날

늘 이웃과 함께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우리 국민과 모든 인류가 평안해지길
발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JOGYESA / 02.768.8500 / www.jogyesa.kr